

“범죄예방과 사회안전정책”

최근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는 이상동기범죄(묻지마 범죄)가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.

경찰청은 지난해 1월 이상동기범죄 대응 태스크포스(TF)를 구성한 후 올해 처음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다. 제3자 대상 분풀이,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범행동기로 하는 925건의 범죄 중 신체적 피해가 뚜렷한 살인, 상해, 폭행치사 사건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분석해 총 18건(올해 상반기 기준)을 이상동기 범죄로 최종 분류하였다. 죄종별로는 상해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3건, 폭행치사 1건순으로 나타났다.

쏟아지는 범죄 기사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각종 안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. 서울시와 성북구에서는 긴급 신고, 귀가 모니터링 및 그 밖의 안심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「서울 안심이앱」 운영, 1인 가구를 위한 안심장비 지원사업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.

※ 이상동기범죄 : 범행동기 이상성, 피해자 무관련성,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 추출

(이상동기 범죄 분류를 위한) 범행동기별 범죄 건수 검토 현황

(단위: 건, 2023년 상반기 기준)

■ 폭행 ■ 상해 ■ 살인

▶ 범행동기 : 제3자 대상 분풀이



▶ 범행동기 : 사회에 대한 적대감



이상동기 범죄 죄종별 현황(총18건)

(단위: 건, 2023년 상반기 기준)

■ 상해 ■ 살인 ■ 폭행치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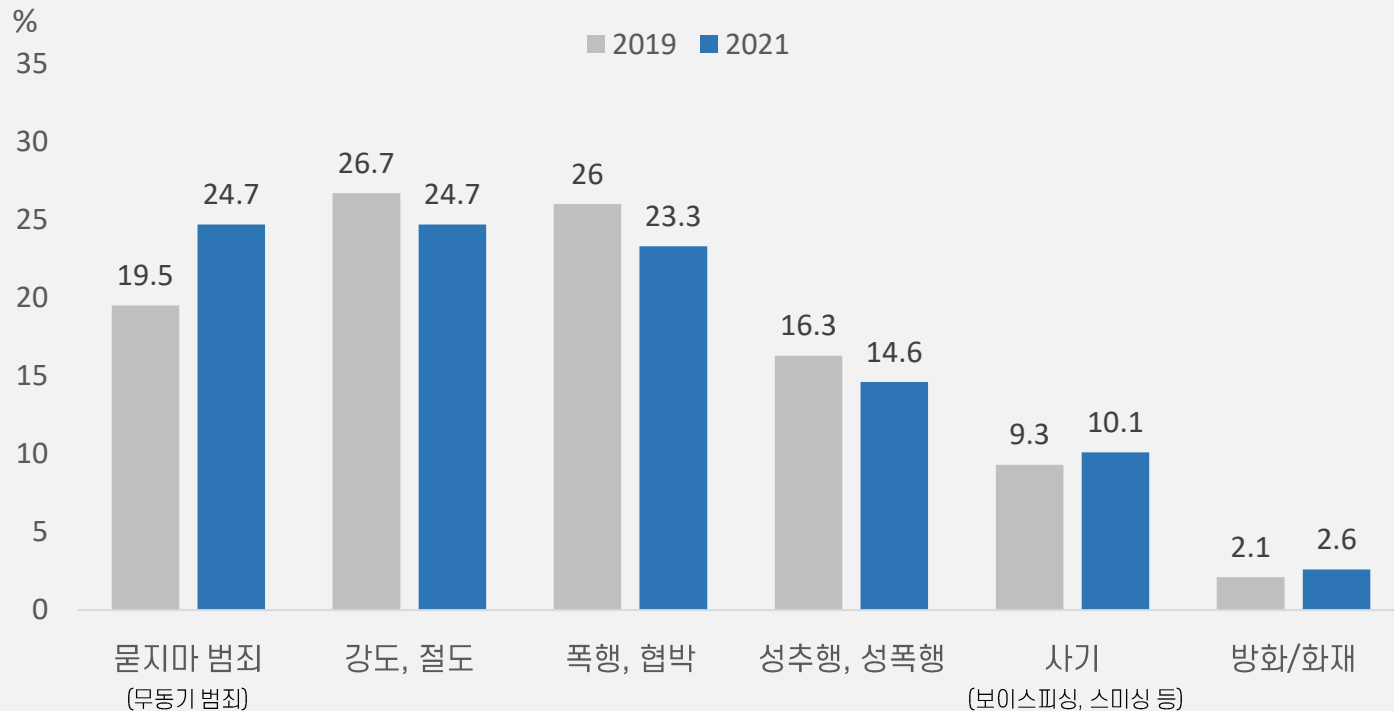


(※자료: 경찰청)

유형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조사결과,

성북구민들은 ‘묻지마 범죄’, ‘강도, 절도’, ‘폭행, 협박’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큼

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(유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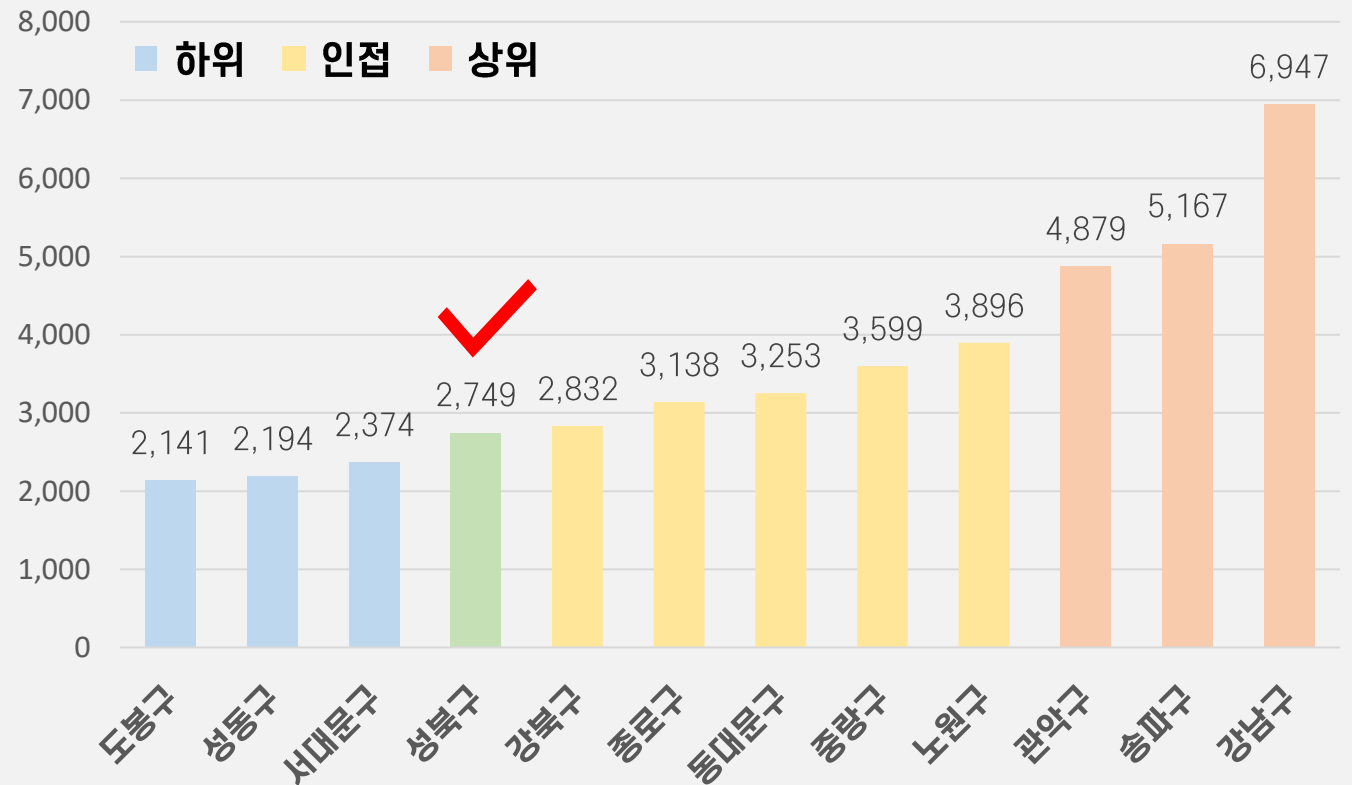
범죄유형 중 ‘묻지마 범죄’(24.7%), ‘강도, 절도’(24.7%), ‘폭행,협박’(23.3%)으로 인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비교적 높았고, 다음으로는 ‘성추행, 성폭행’(14.6%), ‘사기’(10.1%) 순으로 나타났다.

직전 조사인 2019년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인 유형은 ‘묻지마 범죄’였으며, 특히 성북, 삼선권(39.4%)에서 ‘묻지마 범죄’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다. ‘강도, 절도’에 대한 피해 두려움의 경우 동선,안암,보문권(32.5%)에서 높게 나타났고, ‘폭행, 협박’에 대한 두려움은 ‘성북, 삼선권’(35.1%)에서 높게 나타났다.

5대 범죄 발생건수, 성북구는 25개 자치구 중 20위, 총 2,749건

2022 서울시 자치구별 5대 범죄 발생건수

- ▶ 2022 서울시의 살인,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총 90,399건, 25개구 평균 3,616건으로 나타났다.
- ▶ 자치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 상위 3개구는 강남, 송파, 관악 순으로 나타났고, 발생 하위 3개구 도봉, 성동, 서대문으로 나타났다.
- ▶ 성북구의 발생건수는 2,749건으로 총 25개 구 중 20위로 나타났다. 25개 자치구 평균 미만이며, 인접 5개 구(강북, 종로, 동대문, 중랑, 노원)의 발생건수와 비교했을 때도 적은 편에 속했다.



(※출처: 서울지방경찰청 치안통계)

※ 5대 범죄 : 살인, 강도, 강간·강제추행, 절도, 폭력

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성북구 **구민 안전 정책 소개**

서울 안심이앱

안전취약계층이 귀갓길
위험사항 노출 및
불안감을 느낄 때 앱을
실행하여 도움을 요청할
수 있는 서비스 제공

※ 주요기능

- 긴급신고, 귀가 모니터링
-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



안심장비지원사업

1인 가구, 1인 점포,
스토킹 범죄 피해 우려
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
지원을 위한 스마트
초인종, 가정용 CCTV,
무선 비상벨 등 신청 접수



안심지킴이집

24시간 편의점 30곳을
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
지정하여 위기상황시
편의점으로 대피하면
직원이 안심지킴이가
되어 경찰과 연결 및
안전한 귀가지원



치안협의회 운영

치안협의회 활동 강화로
민관합동순찰, 범죄예방
기반시설 확충, 만성분노
해소를 위한 심리치료
등을 지원하여 선제적
위기관리 체계 마련 및
사회안전망 구축

